

창간 71주년에 부쳐

호남 언론의 종가(宗家),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간 71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타블로이드판 두 개 면으로 고고성(呱呱聲)을 울린 광주일보는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서 지역민과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등 격동의 물결을 헤치며 현대사의 증인이자 지역 사회 파수꾼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술한 도전과 역경에도 광주일보가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고,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과제는 경제와 안보, 민생 전선에 동시다발로 밀려드는 다중 위기의 극복입니다. 지난해부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高)에 허덕여 온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리 상승으로 성장과 고용의 부진이 우려됩니다. 이미 경제의 3대 축인 투자·생산·소비는 물론 수출마저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식량 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미·일 대북·중·러 간 긴장된 구도가 고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세 타격'을 앞세운 군비 경쟁으로 남북 간 충돌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설

상가상으로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은 극단적 진영 대결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최소 득표를 차이로 신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일성으로 "의화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와 만남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대화나 타협이 없는 '정치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에 대한

복합 위기 극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얼키설키 뒤엉킨 실태를 풀어야 할 주체는 결국 정치권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지금이라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과 초당적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4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팬데믹의 암울한 터널을 조기에 벗어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전남 지역 의대와 광주 공공의료원 등 공공 의료를 서둘러 확충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주가·일자리 양극화로 커진 불평등의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심화된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남도는 신안 섬 주민들의 20년 숙원이었던 흑산공항 건설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신안)에 이어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순천)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서 광주는 미래 자동차, 전남은 우주발사체 산단 조성이 확정돼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조광역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상생의 상징이자 지역 발전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을 8년 만에 또다시 분리하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구조로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 민심과 괴리가 크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등 폐단이 큼니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역 의원들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역민들도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갈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지만 연대와 협치, 상생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7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의 기수로서 절절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호남 도약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진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디오게네스처럼 정론 직필의 횡불을 높이 들어 지역 사회를 밝힐 것입니다. 사실 보도와 품격 높은 논평으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발 끈을 바짝 졸라매겠습니다. 올바른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쇄신과 차별화를 통해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공기(公器)가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직시하며, 100년 역사를 향해 뚝뚝뚝 나아가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편담을 바랍니다.

정론 직필의 횡불로 지역 사회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입법 대 행정' 대결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탈원전·문재인 케어 등 전임 정부 정책은 잇따라 폐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 징용 3차 변제안'과 과로를 부추기는 '주69시간 근무제'는 국민적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169명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대표로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승자와 패자가 다시 격돌하는 연장전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당파성과 강성 팬덤에 기대어 서로 적대시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극단으로 갈린 정치 구조는 국민통합은 물론

기회 불균형이 유지되는 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방 분권과 인구 분산 정책이 절실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나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복합 소멸물은 신계계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롯데도 참여를 공식화 하면서 유통 3사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대 산업유산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국제 공모로 마스터플랜 설계를 확정했고, 17년 넘게 답보 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는 오는 7월 제3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조성도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군 공항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공동 대응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지사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올해로 43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씨 손자 우원 씨의 사죄 행보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앞당겨 민주주의의 새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동지회와 성급한 화해를 추진한 데서 비롯된 오월 단체 및 시민사회 간 분열도 조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서효인의 '소설처럼'



비관에서 얻은 용기 - 구병모 미니 픽션 '로렘 입숨의 책'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한때는 우리도 인간에게 희망이란 걸 걸었던 적이 있었다. 인간의 선한 의지로 세상은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과 문명으로 세계 곳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같은 것이다. 지금 그런 믿음은 순진하다 못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다. 혹자는 잔인함보다는 다정함으로 인류는 살아남았다고 하고(브라이언 헤어·베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의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는 보고 또한 있지만(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현실에서 인간은 서로를 배척하는 이기주의자가 분명하며, 지구에서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는 악한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으로, 우리 공동체의 악행은 실재하는 것이다. 구병모 소설은 이러한 비관에 일찍 눈을 뜨다. 첫 소설집인 '고의는 아니지만'에서부터 작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치밀하고 과감하게 엮어 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가의 다른 작품과 사뭇 다른 뉘앙스와 주제 의식을 갖는다. 구병모의 작품 세계는 하나의 나무, 같은 뿌리에서 자란 다른 줄기인데도 그 줄기와 잎사귀가 워낙 다채로워 울창한 숲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미니 픽션 모음집 '로렘 입숨의 책'은 숲의 색깔과 질감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전망을 배후에 두고, 작가의 상상력은 멀리 뻗고 깊게 자리한다. 손서 볼 틈 없이 자란 야생의 잡목처럼 가까이에서 보면 위협적이고 멀리서 보면 웅장하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소설에서 탈락자는 맹수가 도사린 구덩이에 빠진다. 실력이 뛰어나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달린 문'의 예술은 예술적 수월성만으로는 열리지 않을 것이었다.

'세상에 태어난 말들'은 인간이 이루어낸 언어 체계에서 세계의 허점을 발견한다. 단호하게 배격하고 삭제되어야 할 말인 듯하나, 인간의 복잡함은 나쁜 단어의 퇴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천사나 신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누더기 인간'은 투명인간에 대한 현실적 사유가 돋보였지만, 투명인간은 소수자 중에서 소수자일 것이고, 우리 사회가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투명인간은 투명이 아닌 누더기 얼굴의 인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병모 소설의 비관을 따라 읽다 보면, 놀랍게도 비관이 모여 자그마한 의지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시간의 벽감'과 같은 소설을 읽을 때, 인간에 의해 모든 것이 망쳐졌지만, 그 망가진 세계에서 살아남아 다른 세계를 꾸꾸는 자 또한 결국 인간이다. 앞서 말한 소설에서도 잔혹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냉소든 저항이든 행동을 취하는 것도 인간이다. 결국 구병모의 비관은 인간은 이미 망해 버렸다는 비관이 아니라, 망해 버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비관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비관은 용기라 불러도 틀리지 않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비관은 용기를 준다. 구병모의 비관이 그렇다.

의료칼럼

당뇨와 혈당 낮추기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성인의 약 208만 명에게 이미 당뇨병 전 단계가 있다고 보고된 만큼 젊은 연령대에서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고혈당이 심한 경우 피로감이나 무력감, 체중 감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허기가 저서 음식을 많이 먹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혈당과 이로 인한 대사 이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에 관한 여러 역학 연구에 의하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환자의 적극적인 혈당 조절은 대혈관 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낮추고 합병증의 진행을 늦춘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와 자가 혈당 측정을 권고한다. 당화혈색소를 통해 검사 전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측정하는 자가 혈당 측정치의 정확성도 판단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는 2~3개월마다 검사할 수 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연 2회 검사가 권장된다.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2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 당화혈색소 6.5% 미만, 1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 7.0% 미만이 권고된다.

자가 혈당 측정은 당뇨병 환자에게 개별적인 치료에 따른 반응이나 치료 후 조절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의학적 영양 요법, 운동 요법, 약물 치료의 정도를 조절하는 지표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의료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대체 없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수시로 측정 가능한 연속혈당 측정기기도 혈당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당뇨 환자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의학 영양 요법 및 운동 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관리할 수 있다. 의학 영양 요법은 당뇨병의 자기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혈당과 혈청 지질 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체중을 달성 또는 유지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루 식사 섭취 횟수, 식사 시 가족 동반 여부, 음주·간식 습관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일주일에 적어도 사흘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과 같은 운동은 혈압을 악화시키거나 근육, 뼈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가공식품 및 당류·음료 소비의 증가, 비만, 신체 활동의 감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이 지목된다. 특히 당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2형 당뇨병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 약 여섯 명 중 한 명(16.7%), 65세 이상 성인 약 열 명 중 세 명(30.1%)이 당뇨병에 해당한다.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한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에서 약 1479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30세 이상 성인 열 명 중 네 명(44.3%), 65세 이상 성인 두 명 중 한 명(50.4%)에 해당한다. 특히 30대

無 等 鼓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에서 두 차례 만난 그의 첫 인상은 차분했다. 학창시절 그의 책이 전해준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던 터라 의외다 싶었다. '빨치산의 딸'을 쓴 정지아 작가다. 지리산과 백야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 부모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간 책은 발간 당시 판금 조차됐고,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근 그의 이름이 자주 호명되는 건 아무래도 25만 부 넘게 팔린 '아버지의 해방일지'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가 심판받던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과 사생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올해의 책'이다. 2004년부터 '월 시티 원 북'을 진행중인 순천시는 광재식의 '지구엔 랜잡아, 우리가 문제'를 선정했다. 이 책은 전남도, 동구에서도 모두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지난해 '불편한 편의점'을 선정했던 전남대도 오는 5월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한다. 지자체들은 선정작과 함께 후보작 리스트도 함께 공개했다. 어쩌면 후보작 중 취향에 맞는 또 다른 책을 '발견' 할지도 모른다. '책 읽기'를 올해의 계획으로 정했던 이들과라면 한 번쯤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선정작들은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또 작가와의 대화, 독후감 쓰기, 토론, 세미나 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시 동구는 '2023 책읽는 동구, 올해의 책 10권'을 발표했다. 김연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임선우의 '유령의 마방일지'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오죽하면 글짓냐"가 심판받던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과 사생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올해의 책'이다. 2004년부터 '월 시티 원 북'을 진행중인 순천시

서민·청년 올리는 '전세 사기'... 촘촘한 대책 시급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육상 국가 대표를 지낸 유망주였다고 한다. 여성이 남긴 유서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씁쓸함을 준다. 그녀는 2010년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동했으며 2017년까지 정상급 육상 선수로 기대를 모았다.

전세 사기는 '무자본 겹 투자'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가진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산 이들이 나중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강릉 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면 타인의 돈과 재물도 중요하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이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강릉 전세' 주택 매매 등의 절차를 비롯해 '건축용'이나 '빌라형' 등과 같은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와 닿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곽지연·광주시 광산구 신기동·학원가 이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